

# 자 기 소 개 서



소 속	○○○학교
직 위	○○
성 명	○○○

# 자기소개서

소 속	○○○	직 위	○○	성 명	○○○
-----	-----	-----	----	-----	-----

## ☀ 교직 생활의 모델, 멘토를 만나다.

■ 1995년 OO중 발령을 받고, 좌충우돌 교직 생활을 시작했다. 첫 발령지에서 만났던 두 분의 선배 교사를 통해 어떤 교사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어렵פות한 답을 찾을 수 있었다. 토요일 오후, 학생들과 함께 땀을 흘리며 재활용 쓰레기를 직접 분리 수거하시는 선배교사의 모습을 보면서 교직자의 마음가짐을 배웠다. 그리고 매년 늦은 밤까지 학생들의 작품을 다듬어 전시회를 가졌던 또 한 분의 선배교사에게서 학생을 중심에 두고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배웠다. 작은 시골학교에서 학생들과 학부모를 비롯한 마을 주민들이 학교의 전시회를 통해 한 자리에 모여, 함께 학생들을 격려하고 선생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던 기억이 지금도 따뜻하게 남아있다.

■ 2004년 OO중에서 40년이 넘는 낡은 학교를 개축하는 사업에 참여했다. 큰 사업이라 부담이 컸는데 학생에 대한 애정과 교육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진행하셨던 당시 교장선생님을 통해 리더로서의 책임감, 추진력, 함께 근무하는 교사를 신뢰하며 꿈꾸는 학교를 만들어가는 일의 매력을 경험하고 배울 수 있었다.

## ☀ 성장의 원동력, 동료교사·학교공동체·지역공동체와 협업하다.

■ 2002년 OO중 근무 중에 자생연구회 활동을 위해 퇴근 후 학교에서 모임을 하며 수업을 고민하는 선생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 자신의 수업에만 집중했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 잘 가르치는 것은 먼저 배움에서 시작되는 것이라 생각하고, 타 학교, 타 과목 교사들과 함께 연구회를 만들어 공부했다. 토론수업, 웹활용 수업, 도서관 활용 수업, 기초학력 향상 수준별 수업자료 등 7년 동안의 연구 활동을 통하여 동료들과 함께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고, 우수연구회로 선정되어 경상남도교육감과 교육부 장관 표창을 받는 기쁨도 누렸다.

■ 2008년 OO중에서 교육부 연구학교를 운영했다. 교육과정 편성 권한이 학교에 주어지는 2007 개정교육과정을 연구 운영하면서 학년군, 교과군, 창의체험활동, 집중이수제 등을 동료교사들과 함께 고민하고 학교의 상황에 맞게 편성하여 운영하였다. 당시로서는 새로웠던 여러 가지 교육활동을 동료 교사들과 협업하면서 시도해볼 수 있었다.

■ 2008년 OO중은 학생수가 지속적으로 줄어 폐교 위기에 있었다. 학교에서는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에 참여하여 주중 야간 공부방, 주말 마을 공부방, 과학고·외고 멘토링, 체험활동, 대학생 멘토링 등을 통하여 지역과 함께 학생의 일상과 성장을 살폈다. 함께 애썼던 노력은 떠났던 학생과 타 지역의 학생이 OO중으로 전입해오면서 그 성과로 나타났다. 퇴근 후 시간을 쪼개어 야간 공부방을 지도해 주신 선생님, 석식을 준비해주신 조리사님과 학부모 도우미, 야간 학생 하교 버스를 지원해 주신 OO기업 대표님, 그리고 프로그램을 운영비를 지원해 준 총동창회와 OO교육청, OO연구센터의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 학교 안에서의 협업을 끌어내는 교사의 연대와, 학생 한 명 한 명의 성장을 함께 살피는 마을의 역할, 지자체와 교육청의 지원을 이끌어내는 관리자의 책임감 있는 행정력이 학교의 성장과 변화를 이끌어내는 동력임을 배우는 시간이었다.

## ☀ 새로운 학교, 행복학교를 만나다.

■ 2020년 OO중 교감으로 발령 받아 경남형 혁신학교인 행복학교를 만나게 되었다. OO중은 학생들의 성장을 중심에 두고 배움 중심 수업을 실천하고, 업무 경감을 통하여 교사가 수업과 학생 생활교육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했다. 또한 학생과 학부모가 교육의 주

체로서 학교의 교육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꾸준히 제공하고 무엇보다 다양한 협의체를 통해 소통과 배려의 교육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한다. 민주적인 학교 문화를 선도하는 학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이다.

학교 구성원이 함께 학교 비전을 만들고, 학교의 목표를 함께 실천해 가는 동료성과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협의의 과정에는 늘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과정이 있었기에 더 깊이 고민할 수 있었다. 교육력이 있는 학교는 역량 있는 한 명의 리더가 만드는 것이 아니었다. 학교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지혜가 모여 성장을 이끌고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 ● **경남의 직업계고를 새롭게 변화시키다.**

■ 2013년 9월~2018년 8월까지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직업계고 담당 장학사로 근무했다.

#### ■ **경남의 직업계고 학생의 취업역량강화를 지원하다.**

2013년 직업계고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2010년부터 직업교육 선진화 정책에 따라 정예화된 특성화고는 취업선도학교로 지정되어 관련 산업 분야에 학생이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2013년 OO교육청 취업지원센터 담당장학사로 ‘찾아가는 마이스터 및 CEO 특강, 취업캠프, 심층면접, 자기소개서 작성’ 등을 지원하였다. 또한 직종별 기업체 인사담당자를 강사로 위촉하여 관련 분야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자기소개서 작성 요령,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상 등을 안내하여 학생들의 취업역량을 강화하였다. 이런 노력은 2013년~2015년 OO교육청 직업계고 학생의 취업은 전국 상위권을 유지하는 결실로 나타났다.

#### ■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 담당자로서 사업지원 및 채용박람회를 개최하다.**

8개 학교의 중소기업청 인력양성 맞춤형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과 협업하여 사업 여건을 조성하고 채용박람회를 추진하였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과 기업이 취업에 대해 협약한 후 기업에서 필요한 태도와 기술을 학교에서 익혀 해당 기업체에 취업했다.

#### ■ **NCS기반 교육과정 도입 및 정착을 지원하다.**

2015개정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직업계고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교육과정이 도입되었다. 교육과정의 변경에 따라 각 교과목의 성취기준이 바뀌고, 교과 내용, 실습실 기준 변경, 실습기자재 확충이 필요했다. 경남의 직업계고가 관련 산업계가 필요한 인재 양성 유형에 맞게 교육할 수 있도록 연 1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실습실 환경 개선, 실습기자재 확충, NCS 연수 등을 추진했다. 또한 NCS 교육과정 컨설턴트를 양성하여 각 학교의 교육과정을 점검 및 컨설팅하여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 ■ **마이스터고 및 OO마이스터고 개교를 지원하다.**

경남의 마이스터고 지원 담당자로서 마이스터고 교육과정 운영, 학과 개편에 따른 실습실 증축, 기자재 확충 등을 지원했다. 또한 OO마이스터고 개교를 위해 교육부, 직업능력개발원과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교육과정 설계 및 편성, 교과서 집필 등을 지원했고, OO마이스터고 기숙사 신축, 실습동 증축, 나노기술분야 기자재 지원했으며, OO시청과 협의하여 교육과정 운영비를 매년 지원받았다.

#### ■ **직업계고 교사 수업역량을 강화하고, 교원의 심화연수를 지원하다.**

특성화고 교원의 교수·학습 역량강화 및 수업 개선을 위해 직업기초능력 연수, 직업교육 전문가로서의 리더십과 전문역량을 갖춘 직업교육 CEO 연수 등을 개설하여 전문교과 교육력 강화를 지원했다.

#### ● **지원 동기**

■ 거제공업고등학교는 1968년 개교 이래 우리나라 산업근대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직업교육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10년 마이스터고로 전환하여 지역의 조선 산업체와 상호 협력하여 조선 분야 영마이스터를 양성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뒀다.

■ 하지만, 2015년부터 시작된 조선분야 경기 위축에 따른 취업자 수가 감소하고, 관련 산업의 침체가 되고 있어 조선분야 인재를 양성하는 거제공업고등학교에도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신입생 지원율이 낮아지고 있으며, 중도탈락 학생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재학생의 자격증 취득률과,

졸업생 취업률이 낮아지고 있다.

■ 2016년 NCS기반 교육과정 도입, 2018년 과정 평가형 자격 도입, 2020년 고교학점제가 마이스터고에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다.

■ 이러한 격변의 시기에 **거제공고에 가장 필요한 것은 위기를 극복하고,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교육 전문가가 필요하다.** 4차 산업시대를 대비한 교육을 이끌 수 있는 교육전문가, 고교학점제 교육과정으로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고, 과정 평가형 자격을 도입하여 대학생이 응시하는 전공 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거제공고에서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시스템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교육 전문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중도탈락 학생의 요인을 분석하여 한 학생도 탈락하지 않도록 교육의 공공성을 회복할 **교육 전문가**,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은 기업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연계할 기업을 찾아서 MOU를 맺고, 교육과정을 협의하여 기업맞춤형 교육을 강화할 **교육 전문가가 필요하다.**

■ 학교는 기업이 아니다. 학교의 경영은 20~30년 전의 경험만으로 이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청소년들의 심리를 이해하고, 교직원들과 협업을 통하여 거제공업고등학교만의 특색있는 교육과정을 만들어가며 학교의 교육력을 다져낼 수 있어야 한다. 대외적으로는 도교육청, 교육부, 직업능력개발원 등과 협업하여 학과 재구조화 및 학과 개편을 이끌어가야 하고, 학과에 맞는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 및 배움중심 수업,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등으로 학교의 교육력을 높여 학생이 가고 싶은 학교, 학부모가 보내고 싶은 학교, 기업이 찾은 학교를 만들어 우수한 신입생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구현해 갈 교육과정 전문가가 필요하다.**

■ 26년 동안의 교직생활을 통하여 교육과정부장, 안전생활 부장, 정보부장, 평가부장, 학년부장, 도교육청 직업교육 담당 장학사, 교육지원청 교육과정 담당 장학사, 교감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학교경영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쌓을 수 있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교원, 학생, 학부모, 동창회, 지역사회, 기업체 등 교육공동체의 역량과 지혜를 모아 **바른 인성과 창의성 갖춘 조선 분야 영마이스터를 육성하고자 한다.**

#### ☀ 교육철학

■ 존중과 소통의 학교 문화는 학교에 활기를 더하고, 학교 교육력에 생기를 불어넣는다. 학교 구성원의 의견이 모두 가치 있게 받아들여지고, 그들의 필요나 요구가 토론의 대상이 되며, 실제 학교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민주적인 의사소통 체계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 교직원, 학생, 학부모가 각자의 입장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이들의 목소리가 교육공동체의 다모임을 통해 공유되고 협의의 과정을 거쳐 현실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학교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고 소통하는 자치공동체를 수평적인 리더십으로 민주적인 **학교 문화**를 만들어 갈 것이다.

■ 교육의 본질은 수업이다. 그리고 수업은 학생 생활교육과 매우 긴밀하게 이어진다. 하지만 교사들에게 주어진 행정 업무와 각종 행사로 인하여 교육의 본질을 놓치기도 한다. 그러므로 교사들이 자신을 성찰하고, 서로를 살피며 교과 수업과 학생 생활교육에 집중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중심으로 학교 조직을 개편하겠다. 수업 혁신과 학생 생활교육을 함께 고민하는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통하여 서로 배우고, 서로 지지하는 **돌봄의 배움공동체**를 구현하고자 한다.

■ NCS 기반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과 고교학점제로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부여하고, 지식과 실무를 겸비한 영마이스터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커리어 패스, 전공별 과정 평가형 자격 운영, 영마이스터 인증시스템** 등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거제공업고등학교만의 특화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산업현장에서 조선 분야 전문가로 우뚝 설 수 있는 영마이스터를 육성할 것이다.**

■ 학교는 지역의 소중한 자산이고, 지역의 신뢰와 지지를 바탕으로 성장한다. 그러므로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한 교육 활동이 우수한 마이스터고로서의 성장을 이끌어내는 동력이 될 수 있다. 지자체, 공공기관, 기업체와 연계하여 **기업체가 요구하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학교와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거제공업고등학교를 구현할 것이다.**